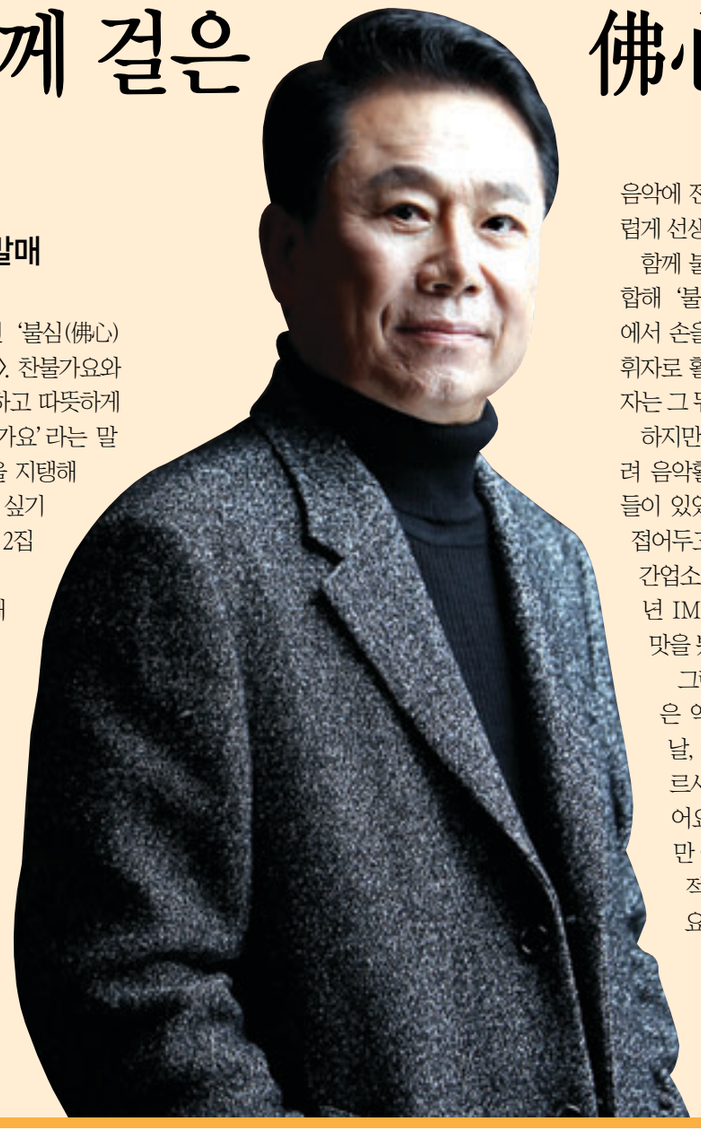
44년 함께 걸은 佛心의 길, 스승 원세휘 유작을 담다



불자 가수 오영민, 불심가요 2집 '심향' 발매

흔히 말하는 '찬불가요'가 아닌 '불심(佛心)가요'를 부르는 가수 오영민〈사진〉. 찬불가요와 맥락은 같지만 대중들에게 더 편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심가요'라는 말을 붙였다. 또한 오랜 시간 자신을 지탱해 온 '불심'을 곡에 온전히 담아내고 싶기도 했다. 그런 그가 '불심가요' 2집 '심향'으로 돌아왔다.

불자 가수 오영민이 2집을 발매했다. 이번 앨범은 그를 불교로 이끌어준 인생 스승이자 음악 스승인 故 원세휘 작곡가의 유작 10곡이 담겼다.

원세휘 작곡가는 70~80년대에 오승근의 '떠나는 님아' '미련' 등 많은 히트곡을 남긴 대중가요 작곡가로, 오 씨와는 1974년 처음 인연을 맺었다.

"처음에는 대중가요 작곡가와 가수로 원세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에 선생님께서 불교에 귀의하시며 불교음악에 전념하셨고, 원래 불자였던 저도 자연스럽게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함께 불심의 길에 오른 스승과 제자는 의기투합해 '불심가요' 1집을 냈다. 스승은 대중음악에서 손을 떼고 대형 사찰 및 군법당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는 등 불교음악에만 전념했고, 제자는 그 뒤를 착실히 따랐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불심에 매달려 음악활동을 이어가기에는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 씨는 불심가요를 잠시 접어두고 조그만 가게를 차려보기도 하고, 야간업소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97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오 씨도 사업의 쓴 맛을 봤다.

그런 그를 다시 한 번 불심가요로 이끈 것은 역시 원세휘 작곡가였다. "2015년 어느 날, 선생님께서 곡차 한 잔 하자며 저를 부르시곤 '다시 불심가요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대중가요도 해보고, 사업도 해봤지만 불심가요를 부를 때만큼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기에 저도 항상 미련이 있었거든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20여년 만에 다시 '불심가요'로 뭉쳤다. 변변한 공간조차 없어 자택에서 상 하나를 펴놓고 작업해야했지만, 늘 마음 한편에 담아뒀던 불심음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고 한다. 하지만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쯤,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다. 원세휘 작곡가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것. 결국 원세휘 작곡가는 마지막 작업에는 참여하지 못한 채 올해 6월 작고했다.



가수 오영민의 불심가요 2집 '심향' 앨범 자켓.

'떠나는 님아' 등 작곡가 원세휘 불교계에서도 활발한 활동 펼쳐 직장암 판정받은 후 올 6월 작고

제자 오영민, 유작 10여곡 모아 20여년 만 2집 앨범 발표 '눈길'

"선생님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사장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작품을 맡기시며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 2집을 시작으로 사부대중을 위한 불심음반을 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교계 곳곳에서 음성공양도 펼치며 불교음악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사리자여' '용서 하소서' '부처님 부처님' '봉정암' '오늘' 등이 수록됐다. 오 씨의 가요버전 뿐 아니라 오해이 씨의 클래식 버전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제작 삼보뮤직.

오영민은 1975년 KBS전국노래자랑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가수로 데뷔했다. 이후 '고향의 강변' '나의 사랑아' '별들의 사랑' 등 대중가요를 비롯해 '옴 마니 반 메 훔' '오! 나로 하여금' '마음 앓이' 등 불심가요도 발표했다. 국내 뿐 아니라 1987년 일본에 진출해 3집 앨범을 발매할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3회 맞은 만해통일문학축전, 전년보다 규모 확대

8월 29일 심우장 일원서 만해통일문학축전 열려

제3회를 맞은 만해통일문학축전이 올해 학술발표회의 규모를 키워 더욱 풍성하게 열린다.

만해통일문학축전위원회(공동대회장 선진규 · 문효치)는 제3회 만해통일문학축전을 8월 29일 오전 11시~오후 5시 서울 성북구 심우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만해통일문학축전은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 및 민족문학 기여도를 조명함으로써 오늘날 통일한국의 미래사상으로 선양하기 위한 자리로 △기념식 △학술발표회 △통일염원 전국노인백일장 등으로 꾸려진다.



메인 행사는 '만해사상과 통일문학' 주제 학술세미나다. 1가지 주제로만 진행됐던 지난해 보다 규모를 키워 올해는 총 3개 발제로 진행된다. 기조발제는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한국종교학회장)가 맡았으며, 이밖에 △제1주제 '만해사상과 민족통일'(발제-박재현 부산동명대 교수, 논평-고영섭 동국대 교수 및 김영만 서울메트로법우회장) △제2주제 '만해의 독립사상과 통일문학 연구'(발제-장윤익 한국문인협회 고문, 논평-이혜선 한국문인협회 이사 및 함승현 대한민국여군총연합회장) 등의 주제 발제가 이어진다. 당일 오후 1~4시 진행.

통일염원 전국노인백일장은 전국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남녀가 참여하는 문학 행사로, 노인들의 문예창작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로 3회째 열리고 있다. 운문 및 산문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시상은 △장원(한국문인협회 이사장) 30만원 △차상(한국불교문인협회장상) 20만원 △차하(한국불교문인협회장상) 10만원 △장려(한국불교문인협회장상) 각 5만원 씩 8명 등이다.

참가신청은 전화로 하면 되며, 당일 오후 1시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시제는 당일 발표된다.

수상작은 계간 〈한국불교문학〉에 발표되며 소정의 등단절차를 거쳐 기성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당일 오후 1~3시 진행. 시상식은 오후 4시 30분.

기념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만해통일문학축전위원회는 "만해 한용운 스님은 혹독한 일제 탄압 속에서도 추호의 굴함도 없이 대쪽 같은 굳은 절개로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다. 이에 본 위원회는 스님의 독립정신과 민족문학을 조사 발굴해 집대성, 오늘의 남북분단 상황에서 선양하고자한다"면서 "특히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통일문학 발전 및 남북통일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02)379-4514 박아름 기자

우주 법계의 덕 '만다라'에 번뇌를 담다

도현 스님 개인전 '만다라 Thangka&세 번째 인연'

30여 년 불화 작업에 매진해 온 도현 스님의 개인전이 서울 삼청동 스페이스 선+에서 열린다.

도현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불교미술을 전공, 1998년 우연히 네팔 불화를 접한 후 만다라와 인연을 맺었다. 스님에게 우주 법계의 온갖 덕을 표현한 만다라는 곧 번뇌를 담아내는 그릇이자 수행과 정진에 대한 자기 고백이다.

도현 스님은 "아무 것도 없는 백지에 부처님 세계를 그릴 때마다 출가자의 초발심을 생각했다. 출가할 때 마음가짐이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듯이 매번 하얀 백지를 대할 때마다 그 순수감과 열정을 잃지 않으려 했다"면서 "예술적 관점에서는 부족할지언정 신심과 수행의 도는 넘쳐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현 스님의 만다라 작품 10여점과 수월관음도, 사진작품 등이 소개된다. 전시는 21일까지. (02)732-0732 박아름 기자


도현 스님 作, 아미타구존만다라, 면바탕에 분채, 130x130cm, 2016

법주사, 문화 향유하고 즐기는 '史視樂樂'

8월 19일 오후 2시부터 경내 일원서

조계종 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주지 정도)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는 '사시낙락(史視樂樂)-역사를 돌아보는 한걸음' 행사가 8월 19일 개최된다.

이날 오후 2시~9시 30분까지 법주사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 세월을 반성하는 '점찰의 시간'을 시작으로 사물관람, 역사트레킹, 팔상전 탑돌이, 달빛콘서트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오후 8시부터 시작하는 '달빛 콘서트'에는 3인조 여성 보컬 그룹 '바버렛츠', 4인조 밴드 '몽니', 4인조 재즈그룹 '프렐류드' 등이 대거 출연해 한 여름 밤의 낭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참가 신청은 법주사 홈페이지(www.beopjusa.org)를 통해 가능하며, 행사 당일은 경내 무료 입장이 허용된다.

법주사는 이날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문화재청 문화재활용사업 일환으로 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경북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에 계신 스님께서 내집처럼 생각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부부나 여자 2명을 모시고자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해부학을 전공하시고 중국 한의대를 나오신 스님께서 치료를 해서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게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께 중풍. 치매가 오지않도록 3번의 인연침을 놓아줍니다. 배독이란(몸속대청소) 1차는 위, 대장 속에 배변을 배출하고 2차는 간이나 오장육부에 붙어있는 쓰레기 청소를 하는데 1박 2일이 소요되고 배속에서 나온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혈관속의 피흐름을 보고 배독은 누구나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9373-3778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 99%"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부가서비스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일정관리, 신도영가 기일 자동 알림,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의 다운로드 가능, 물품관리 등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